

가덕후보지! 이로서 안 됩니다.

1 군사공항은 허브공항이 될 수 없습니다.

-  가덕후보지에 공항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김해공항과 이착륙 구역이 겹쳐 군사시설까지 모두 이전해야만 공항운영이 가능함
-  김해공항은 공군의 유일한 전술항공작전기지로서 공군기지 이전을 위해 국가방위와 안보전략적인 기능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
-  군의 작전 운용 특성상 항공관제권과 비행장 운영권을 독점하게 되고, 민간항공기의 활주로 사용을 제한(SLOT) 하게 되므로 허브공항의 역할을 담당하기 어려움

2 공항이용이 불편합니다.

-  가덕도는 국토의 동남단 해상에 치우쳐 있어 대구·경북·울산·서부 경남에서 1시간 이내에 접근할 수 없고, 섬이라는 지형적인 여건으로 추가 교통망을 구축할 수 없어 부산에서 조차 접근하기 불편함
-  도심과 공단지역 교통체증으로 인해 이용자가 원하는 시간에 공항을 이용하기 어렵고, 접근도로의 사정이 공항 운영에 영향을 주어 공항의 제 기능 발휘에 악영향을 주게 됨

3 수요가 없는 적자 지방공항으로 전락하게 됩니다.

-  해상공항은 초기 투입비용 회수를 위해 비싼 시설 이용료를 부과할 수밖에 없어 이용자와 항공사가 이용을 기피하게 됨
-  이용권역이 제한되고, 항공화물 중심인 대구·경북과 멀리 떨어져 있어 여객과 화물수요 확보에 지장이 있으므로 적자운영 예상

4 안전에 치명적인 결함 요소가 많습니다.

-  가덕도는 항공기의 이착륙 방향에 전국에서 4번째로 많은 철새가 서식하는 낙동강 하구가 있어 조류충돌의 위험이 상존함

-  항공기 이착륙 지점에 대형선박 항로가 직접 교차하여 항공기 안전 운항에 치명적 장애 요인이 됨
-  해저 지형과 지질 구조상 매립 후 부등침하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음

5 토지와 공유수면 이용이 어렵습니다.

-  가덕도의 토지와 공유수면 이용을 위해서는 「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」에 의한 군항 통제구역과 제한보호구역 및 제한보호수역등 해군의 군사제한사항 해제가 필요함
-  인근해상이 신항만 대기정박지, 부산연안특별관리해역, 자연환경보전 지역, 생태계보전지역, 습지보호지역 등으로 중복 지정되어 있음
-  가덕도 주변에는 해상 매립 이외에는 추가 부지 확보가 어려워 공항 개발에 따른 에어포트시티 등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기 어려움

6 해상공항은 공사비가 비싸 경제성이 없습니다.

-  가덕도는 섬이라는 지형적 여건으로 인해 매립을 위한 취토장 확보와 토사 운반 등 건설 여건이 매우 열악함
-  가덕도는 연약지반 처리, 방조제 축조, 항공안전설비와 각종 구조물에 대한 염해대책, 김해공항의 공군 및 대한항공 시설 이전, 어업피해 보상 등 추가 요인이 많아 밀양후보지 보다 공사비가 많이 소요됨
-  전문 용역기관에서는 2009년 현재 가덕후보지에 대한 공사비를 약 21조원으로 추정하고 있음

7 막대한 환경피해가 우려됩니다.

-  매립 토사 확보를 위해 인근 진해시 용원동 또는 부산시 강서구의 그린벨트 지역 산지의 대량 절취로 인해 환경피해 예상
-  해상 매립에 따른 기존 해안선의 변화와 해저지형·지질의 변화가 예상되고, 부유토사로 인해 해양생태계 파괴 예상